

‘초코파이情 말차라떼’ 2030세대서 인기만점

오리온은 ‘초코파이情 말차라떼’를 이커머스기업 ‘쿠팡’을 통해 출시 후 2주간 판매한 결과, ‘과자쿠키·파이’ 카테고리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말차맛 식음료 주 소비층인 2030세대의 온라인 유통 채널 이용률이 높다는 것에 착안해 출시 초기부터 이커머스를 활용한 것이 주효했다. 제과업계에서 출시 초기에 이커머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다.

초코파이 말차라떼는 오리온 창립 60주년을 맞아 내놓은 초코파이의 두 번째 자매제품으로 국내산 말차의 향긋함과 풍부한 초콜릿이 어우러진 달콤쌉싸름한 맛이 특징이다. 말차는 찻잎을 곱게 갈아 가루를 내 물에 타 마시는 차로, 차 문화가 발달한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웰빙 원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원성열 기자

‘LG전자 1인 CEO 체제로’ 조성진 사장 부회장 승진



조성진 부회장

LG전자가 ‘미스터 세탁기’, ‘고졸신화’ 등으로 잘 알려진 조성진 부회장의 ‘원톱’ 체제를 구축한다. LG전자는 1일 이사회를 열고 2017년도 임원인사를 발표했다.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한 추진력 발휘를 위한 1인 최고경영자(CEO)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원톱 CEO는 H&A사업본부장인 조성진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해 맡는다. 1976년 입사한 조성진 CEO는 LG전자를 ‘글로벌 세탁기 1위’로 끌어올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5년 H&A 사업본부장에 부임한 뒤에는 세탁기 1등 DNA를 타 가전 사업에 성공적으로 이식해 올해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또 초프리미엄 브랜드 ‘LG 시그니처’와 프리미엄 빌트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김명근 기자

부고

▲공영운(현대·기아자동차 홍보실 부사장)씨 모친상, 전정남 씨 별세, 공영우(사립)·영운 모친상=1일, 부산광역시 부산시민장례식장 2층 VIP실(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31), 발인 3일 오전 7시, 장지 경남 산청군 소재 선산 051-636-4444



인도서도 통한 현대차 ‘품질주의’

신차품질조사 차급별 최다 수상

이온·i10·크레타 3개 차급 1위 석권
사상 첫 연간 판매 50만대 돌파 눈앞

현대자동차가 인도 신차품질조사에서 차급별 최다 수상 브랜드에 올랐다. 현대차는 제이디파워(J.D. Power)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6 인도 신차품질조사(IQS·Initial Quality Study)’에서 이온, i10, 크레타 등 3개 차종이 차급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총 8개 차급 중 3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함으로써 각각 2개 차종이 1위에 오른 도요타와 혼다를 제치고 차급별 최다 1위 수상 업체에 이름을 올렸다.

제이디파워가 실시한 ‘2016 인도 신차품질조사’는 인도 주요 30개 도시에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판매된 차종을 대상으로 구입 후 2~6개월이 지난 고객에게 만족도를 조사해 100대당 불만건수로 나타낸 것이다. 점수가 낮을수록 고객의 품질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현대차는 엔트리 컴팩트(Entry compact) 부문에서 이온(96점), 컴팩트(Co compact) 부문에서 i10(64점), SUV 부문에서 크레타(68점)가 각각 1위를 달성했다. 특히 현지 전략형 소형 SUV인 크레타는 지난해 인도 시장에 출시돼 ‘2016년 인도 올해의 차(Indian Car of the Year 2016)’에 선정된 바 있다.

이 같은 상품성에 힘입어 크레타는 올 들어 10월까지 7만9541대가 판매돼

마루티 스즈키의 브레자(6만6478대), 마힌드라의 볼라로(5만8041대)를 크게 제치며 올해 인도 SUV 시장 전체 판매 1위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i10이 3년 연속, 이온이 2년 연속 각각 해당 차급에서 1위를 기록하며 인도 경승형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이외에도 그랜드 i10(82점) 베르나(69점)는 각 차급에서 2위를, i20(74점) 엑센트(73점)는 각 차급에서 3위를 달성하는 등 현대차 평가 모델 7개 전 차종이 차급별 3위 안에 진입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현대차는 올해 인도에서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42만 465대를 판매하며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 50만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이마트서도 ‘삼성페이’ OK 삼성전자, 신세계와 제휴

삼성전자는 신세계그룹의 모든 매장에서 삼성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삼성페이는 그동안 현장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 제휴카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문제로 신세계그룹 매장에서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신세계그룹의 협의와 함께

카드사들의 시스템 개발 완료에 따라 앞으로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스타벅스, 신세계푸드, 에브리데이리테일, 신세계면세점, 스타필드 하남 등 신세계그룹의 매장 어디에서나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신세계그룹 매장에서의 삼성페이 결제는 씨

티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씨티카드는 결제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적용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이마트는 삼성페이 결제 시작을 기념해 이달 말까지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또 이마트에서 삼성페이를 통해 삼성카드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에는 5000원의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잠실광역환승센터’ 완공 롯데월드타워 교통 습통



잠실광역환승센터 내부 버스 주행로

롯데월드타워가 잠실사거리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환승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첫 터미널형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완공, 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총 1300억원을 투입한 잠실광역환승센터는 총 연장 371m에 버스 정차면이 31면이다. 연면적은 축구장 2.7배 크기인 1만9797㎡이고 잠실역 2호선, 8호선 게이트와 지하 1층에서 수평으로 연

결됐다. 롯데월드타워와 서울시는 1일 오후 광역환승센터 개통식을 열었다. 잠실환승센터는 3일부터 성남, 수원, 광주 방향 6개 노선을 우선 이전하고, 2017년 1월 초에 구리,남양주 방향

11개 노선을 추가로 이전해 총 17개 노선이 지하에서 환승한다. 운행노선별로 정차면을 지정했고, 정차면과 승강장 사이에 스크린도어, 에어커튼 등을 설치해 매연 및 이산화탄소 등의 유입을 차단했다. 잠실광역환승센터는 하루 평균 2만5000명의 시민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17개 노선 외에 단계별로 운행 노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롯데월드타워는 총 5300여 가량을 들여 다양한 교통대책 및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데이터로 보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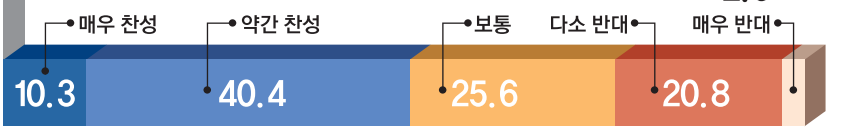
(단위 : %)

●현금결제 후 생긴 동전 이용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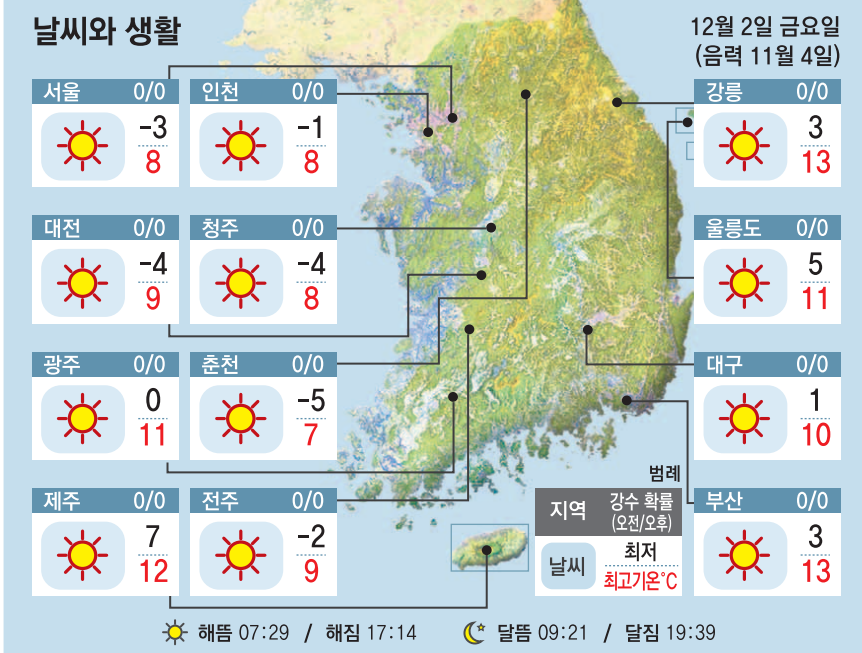


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동전 없는 사회 추진방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9%가 현금 결제 후 잔돈으로 받은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용한다는 의견은 50.3%였고 응답자의 2.7%는 기부나 입금에 동전을 이용한다고 했다. 또 동전 없는 사회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50.7%로 조사됐다. 이중 ‘매우 찬성’이 10.3%, ‘약간 찬성’이 40.4% 수준이었다. ‘다소 반대’와 ‘매우 반대’가 각각 20.8%, 2.9%로 반대 의견은 23.7%에 달했다.

●동전없는 사회 정책에 대한 의견



※ 자료 : 한국은행



산 날씨	바다 날씨	미세 먼지
북한산 -3/8	인천송도 -1/8	서울 62 보통
설악산 2/12	제주도 -3/8	부산 54 보통
오대산 -7/7	경포대 3/13	대구 61 보통
계룡산 -6/9	속초 2/12	인천 57 보통
속리산 -6/8	대전 -1/10	광주 60 보통
소백산 -4/8	안현도 꽃지 0/9	대전 55 보통
팔공산 1/10	변산반도 -3/9	울산 45 보통
지리산 -2/11	거문도 3/11	경기 67 보통
덕유산 -5/9	철포 1/12	강원 62 보통
내장산 -3/9	해운대 3/13	충북 52 보통
한라산 0/8	제주도 7/12	경남 53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3일(토) 서울경기 1/10 영동 6/15 충청 -1/10 호남 1/13 영남 5/15 제주 7/14
4일(일) 서울경기 2/9 영동 5/12 충청 1/8 호남 3/11 영남 6/13 제주 10/15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영연	대표전화	02 2020 0114	연대편집본부	02 2020 1065	www.sportsdonga.com
편집인	이성춘	편집부	02 2020 1032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편집국장	연재호	스포츠1부	02 2020 1041	산업경제부	02 2020 1060	2008년 3월 3일
광고국장	이승욱	스포츠2부	02 2020 1059	사진부	02 2020 1069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인쇄	동아일보사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KEB하나, KB스타즈 잡는다” 37%

농구토도 W매치 88회차 중간 집계
올 시즌 상대 전적은 1승1패로 팽팽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 사업자인 케이토토(대표 손준철)가 2일 오후 7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리는 2016~2017시즌 국내여자프로농구(W KBL) KB스타즈-KEB하나은행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토도 W매치 88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36.80%는 원정팀 KEB하나은행의 승리를 점쳤다.

양 팀의 같은 점수대 박빙승부 예상은 32.92%, 홈팀 KB스타즈 승리 예상은 30.28%로 각각 집계됐다. 전반에도 KEB하나은행 리드 예상이 47.93%로 가장 높았고, KB스타즈 리드 예상(35.44%)과 5점차 이내 접전 예상(16.63%)이 그 뒤를 이었다.

2라운드까지 KB스타즈의 경기력은 지난 시즌에 비해 다소 답답한 모습이다. 지난 시즌 ‘양궁농구’를 바탕으로 경기당 68점(리그 2위)을 뽑은 것과 달리, 올 시즌에는 은퇴한 변연하의 공백 속에 3점수 성공률이 27.03%에 그치며

농구토도 W매치 88회차 투표율 중간 집계		(1일 오전 9시 현재)	
구분	전반 득점대	최종 득점대	
	KB스타즈 - KEB하나	투표율	KB스타즈 - KEB하나
1순위	25-35	11.89%	60-60
2순위	35-30	10.24%	60-70
3순위	25-30	8.99%	70-60
	홈팀 우세	35.44%	홈팀 승리
합계	5점 이내 박빙	16.63%	10점 이내 박빙
	원정팀 우세	47.93%	원정팀 승리

평균 59점(리그 5위)을 기록 중이다. 더욱이 경기당 15.4개로 6개 팀 중 가장 많은 실책을 범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KEB하나은행은 11월 30일 선두 유리은행에 가로막혀 4연승이 좌절되기는 했지만, 끈질긴 추격전을 펼치며 만만치 않은 경기력을 과시했다. 강이슬

과 쏜튼의 활약이 계속된다면, 이번 KB스타즈전도 기대할 만하다. 올 시즌 상대전적에선 양 팀이 1승1패로 팽팽하다.

이번 농구토도 W매치 88회차는 경기 시작 10분 전인 2일 오후 6시50분 발매 마감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프로토) 이외 모든 유사 스포츠베팅 행위는 ‘불법스포츠베팅’이며, 이를 이용할 시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콜민스포츠 통합발매센터 | 불법신고 1899-1119 | www.cleansports.or.kr

• 공식발매사이트 | www.botman.co.kr



스포츠토토도 빙상단 단체 훈련 모습.

“빙상단 훈련장 용도변경 조속히 완료할 것”

스포츠토토, 불법 전용 논란 해명

케이토토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스포츠토토도 빙상단이 불법 창고를 임대해 실내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 1일 입장을 밝혔다.

케이토토는 “해당 건축물은 태릉선수촌 및 선수단 숙소와의 근접성, 선수들의 불편사항 최소화 등을 고려해 여러 장소를 물색하던 중 위치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돼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진행시 확인된 사항은 해당 건축물은 불법으로 축조된 것이 아니었으며, 적법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다만 해당 건축

물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용도변경이 필요했고, 당사는 임대인이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전액 부담하는 내용을 특약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덧붙였다. 또 “훈련장은 선수들의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관계자와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현재도 선수단 훈련 계획에 맞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케이토토는 “스포츠토토도 빙상단이 불법 건축물을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선수들의 실제 훈련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는 오해가 있었다”며 “해당 임대인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소년여자배구 응원 캠페인 스포츠토토 페이스북 이벤트

‘스포츠토토가 유소년 여자배구선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유소년 여자배구선수 응원 캠페인을 펼친다.

국내 유소년 스포츠 발전을 위해 마련된 이 캠페인은 ‘Ready To Tomorrow’라는 슬로건 아래 야구, 농구, 배구, 빙상 등 각 종목에서 활동하는 어려운 환경의 유소년들에게 푸짐한 스포츠 용품을 전달하는 케이토토의 대표 CSR 활동이다. 9월 유소년 야구단 3곳에 다양한 야구용품 전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2의 김연경’을 꿈꾸는 유소년 여자배구선수들을 지원한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 치평초등학교, 천안 쌍용초등학교, 춘천 범내초등학교 유소년 여자배구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7일까지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된 영상을 시청한 뒤 응원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 및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